

고창 태봉서 2000년전 마한시대 토성 발굴

토성 축성기술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정상부 백제~조선 기와편·건물지 나와



고창군 아산면 태봉 정상부에서 마한시대 토성이 발굴됐다. 사진은 태봉 정상부 시굴조사 전경(왼쪽)과 토루 판축. (고창군 제공)

고창 아산면 태봉에서 마한시대 토성이 발굴됐다. 2000년전 마한인들의 토성 축성 기술과 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아산면 봉덕리와 고수면 예지리에 걸쳐 있는 태봉(해발 111.9m)에서 문헌기록과 전설로 알려졌던 마한시대 토성 발굴됐다.

고창군과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해부터 토성의 명확한 위치와 범위,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지표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태봉 정상부와 상단부 일원에서 백제~조선 시대 기와편과 함께 건물지, 태봉의 상단부를 감싸는 토루(폭 4m 내외)와 문지 등의 흔적을 확인했다.

토루는 토성의 방어를 위해 경사면을 'ㄴ'자로 파서 흙으로 다진 곳을 말한다.

현재 '예지리토성'으로 명명된 토성은 1765년 간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고성봉(古城峰)이라 불렀고, 삼한시대에 쌓은 것으로 전해지는 토루(土壘)가 존재함이 처음 기록됐다.

이후 작성된 대동지지, 문헌비고, 고창현읍지, 모양지와 1942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록들을 확인했다.

고창군은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했다.

태봉 정상부를 감싸는 구상유구와 그 내외에서 마한토기로 추정되는 굽다리토기편과 소량의 연철

토기편이 수습돼 마한시대 유적이 밝혀졌으며, 망루(望樓)형 건물지의 흔적도 확인됐다.

또 토루 표본조사 결과, 토루의 바깥쪽 2~3m의 정밀한 판축 다짐층과 안쪽의 성토층이 명확하게 드러남으로써 마한시대 토성 축성 기술과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와 고수면 예지리 일원은 국내 마한 문화유적 최대 밀집분포 지역으로, 마한

의 중심지이자 수도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학술조사를 통해 그동안 문헌과 전설로만 알려진 마한 토성(태봉)의 실체를 확인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추가조사를 통해 토성의 전체적인 규모와 성격 등을 규명하고, 향후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순창군이 '나보다 더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구매를 양보하자'라는 취지의 '나필양 운동'을 펴고 있다. (순창군 제공)

나보다 더 필요한 이에게 마스크 양보

순창군 '나필양 운동' 편다

순창군이 마스크 사재기를 방지하고 주민 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나필양 운동'을 추진한다.

12일 순창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하자 마스크를 쌓아두지 않고 '나보다 더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구매를 양보하자'라는 취지에서 주민실천운동을 제안했다.

특히 순창지역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노령 인구 비율이 높아 마스크 구매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젊은층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순창군은 우선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나필양

운동'을 펼쳐 주민 전체로 확산하도록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마스크 구매를 양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마스크 사용에 대한 개정된 권고사항을 홍보해 면 마스크 사용에 대한 우려도 점차 줄여나가는 한편 개인위생 수칙 준수도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코로나19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면서 "나필양 운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남원 청계리 고분에서 확인된 수레바퀴형 토기와 가야 토기.

남원시 '청계리 고분군' 국가문화재 추진

호남지역 대표 가야 문화유산

고총 축조법·수레바퀴형 토기 발견

남원시가 호남 대표 가야문화유산인 '청계리 고분군'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의 하나로 청계리 고분군의 국가문화재(사적)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청계리 고분군은 시루봉(770m)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 능선의 말단부에 자리한다.

현재 남의 봉분의 크기는 길이 31m(도랑 포함 34m), 너비는 약 20m, 높이는 5m 내외로 현재까지 호남지역에서 발굴된 가야계 고총 중 가장 이르고 규모도 가장 크다.

남원시는 지난해 발굴조사를 통해 호남지역에서 가장 이르고 규모가 가장 큰 가야계 고총의 구조와 축조방법, 호남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수레바퀴 장식 토기 조각을 확보했다.

또 다수의 함안 아라가야계 토기 등 고대 정치조직의 실체와 변화상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했다.

남원시는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에 도전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국가문화재 지정을 통해 운봉 지역 가야문화유산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겠다"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존 관리를 통해 그 활용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동학혁명 시발지 '주산마을' 원래 이름 '죽산마을'로 변경

정읍시, 일제잔재 청산·동학정신 계승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지인 정읍 고부면 '주산(舟山)마을'이 원래 이름인 '죽산(竹山)마을'로 바뀐다. 주산마을 명칭은 일제가 마을의 정기를 끊고자 죽산을 주산으로 변경한 것이다.

정읍시는 지역의 역사성·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의 명칭을 '죽산(竹山)마을'로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마을은 지난 1872년 작성된 조선 후기 고부지역 지방지도에 죽산(竹山)으로 표기돼 있다. 죽산마을은 동학농민혁명을 준비하고 실행을 도모한 사발통문이 작성된 곳이다. 전봉준을 비롯한 20명은 1893년 11월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과 봉건사회의 모순,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타파하고자 송두호의 집에서 거사계획을 세우고 사발통문을 작성해 다음해 1월 고부농민봉기를 일으켰다.

그러나 일제는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지인 죽산마을의 정기를 말살시키고자 배처럼 떠돌아 다니라는 뜻의 주산(舟山)으로 마을 명칭을 변경했다.

정읍시는 죽산마을의 이름을 되찾고자 지난 1일 공고를 내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지난 9일 주민총회에서 주민 찬반 의견조사 등을 거쳐 '죽산(竹山)마을'로 명칭 변경을 결정했다.

정읍시는 마을로부터 명칭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통해 고유한 행정지명 복원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관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정비를 위해 국가기념공원, 말뚝장터, 만석보터, 죽산마을, 전봉준장군고택 등을 권역으로 설정해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

익산시, 전국 최초 이달 시행

익산시는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익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와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근로장려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익산시는 중증 근로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 중증 근로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근로장려수당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족이 근로지원인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고용 창출 효과 증대에 나선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복지 증진 및 일자리 지원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